

동네 한 바퀴

글 | 박철주

그림 | 박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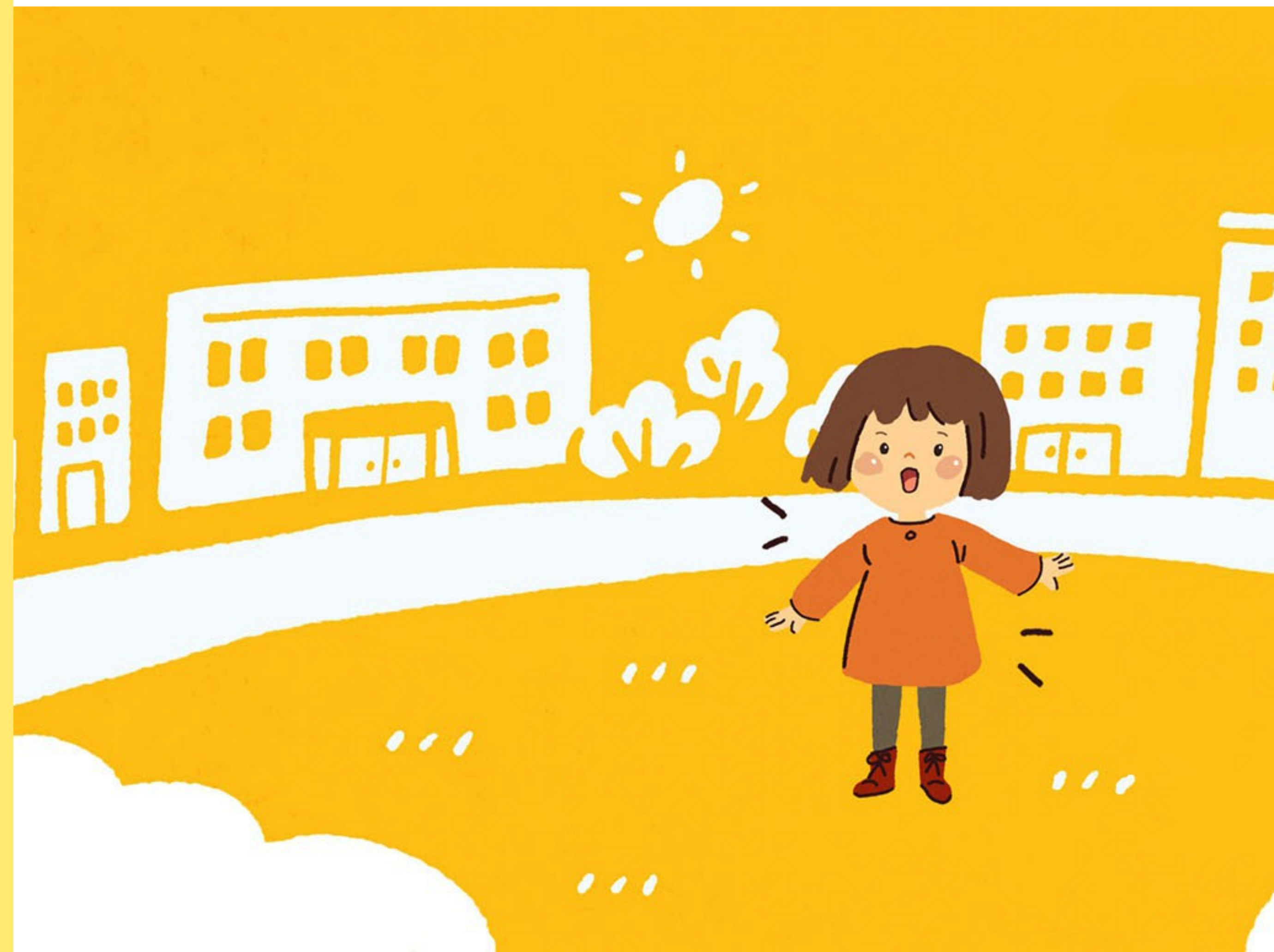
글 | 박철주

그림 | 박은현

편집 | 김은파, 이수인, 이정아

편집 디자인 | 이해명

목소리 | 윤성혜





동네도, 학교도, 친구들도 모두 낯설어요.
바로 어제 이사를 왔거든요.



‘찾을 수 있어.’ 대문을 나와 타박타박 걸어갔어요.
왼쪽은 부동산, 오른쪽은 꽃집. ‘여기도 아니야.’



매콤달콤 떡볶이랑 김밥을 파는 분식집.
옆집은 미역과 멸치를 파는 건어물 가게.
못, 망치, 빗자루를 파는 철물점. ‘어디 있지?’



소방서, 경찰서, 약국, 우편 취급소 앞을 지났어요.
‘여기는 어디지?’ 가만가만 주위를 살폈어요.



학교가 보여요.

아이스크림 가게랑 치킨집도 보여요.

‘맞아, 이 길이야!’



발걸음이 씩씩해졌어요.

국수집을 지나니, 맛있는 빵 냄새가 나요.

빵집이 여기 있었어요. 과일 가게 옆에요.



빵집 문을 열고 들어서면 큰 소리로 말해요.
“아저씨, 식빵이랑 꺾배기 주세요.”

“동네 한 바퀴”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 2019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